

# 하나님 마음을 분별하는 마음이 도의 시작입니다

##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 수도(修道)

제단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이슬성신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흐르는 피의 나이는 육천 살입니다. 마귀의 영이 육천 살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 육천 년 묵은 마귀가 사람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기술적으로 꼬셔서 결국은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마귀보다 더 지능이 높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지능을 능가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구세주입니다.

구세주가 마귀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지능을 능가하는 높은 단계에 올랐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마귀 대장을 죽여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긴자가 됐고 그래서 그 마귀 대장이 앉아 있었던 권좌에는 지금 이 사람의 본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태풍도 오지 못하게 하고 공산주의도 없애버렸습니다. 게다가 해마다 오던 장맛비도 막고, 해마다 풍년 들게 하고 또 남북 전쟁도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쉼도 능력이 없이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가짜 구세주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가짜 구세주라면 감로 이슬성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슬성신이 나온다는 것은 진짜 구세주임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전지전능자가 아니면 감로 이슬성신이 내리지 않습니다.

감로 이슬성신은 승리자의 분신입니다. 승리자의 영의 분신입니다. 이 사람의 분신이 감로 이슬성신이 되어서 내리기 때문에 그 감로 이슬성신이 인간의 탈구멍으로 들어가면 인간이 전부 하나님에 의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국 승리제단에서 있다고 해서 이 역국 제단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전국 제단, 일본이나 미국 제단이 있는 곳에는 다 이 사람의 분신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다 이슬성신이 내리고 있습니다.

### 마귀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입장에서 움직여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마귀 입장, 나라는 의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웃으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웃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짜 도를 닦는 사람은 그 마음의 위치가 하나님에게 있느냐, 마귀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도를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경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를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종교가 있고 영생 안에 종교가 있는 것이지, 죽음 안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라는 의식이 생각하는 종교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또한 '나'라는 의식이 생각하는 학문은 학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진짜 생명의 학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종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마귀를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장할 해야 그게 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됐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겼지요."라고 하는 사람만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긴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긴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이긴 것이지, 마귀가 어떻게 마귀를 이끌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승리제단에서 도를 닦는 방법은 세상에서 도를 닦는 방법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불교에서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는 것도 자기 자신이 도를 닦고, 자기 자신



구세주 조희성님

이 부처님한테 절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하는 것으로 알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 짓입니다. 자기 자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라는 마귀를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장할 해야 그게 도 닦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스님들이 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의 위치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바로 마귀

이기 때문에 항상 '나'라는 것을 버리고 '나'라는 것을 꺾어서 이기는 마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도를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도 닦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더불어 싸워서 나를 이겨야 여러분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나무처럼 돼 버립니다. 내가 아파도 아픈 것도 모르고, 내가 슬퍼도 슬픈 것도 모르고, 좋아도 좋아하는 것도 모르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단계의 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겪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 닦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면 힘든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고 무릎 꿇고 앉아서 다 된 줄 알면 그건 착각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무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나무처럼 됐다고 해서 다 된 줄 알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 즉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시작입니다.

### 내가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의식을 의식하려면 의식할 수 없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집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관 시절 영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무처럼 되어야 구원이라고 그랬지요? 이 사람이 밀실 들어가서 3개월 만에 나무처럼 됐을 때 나는 다 된 줄 알았습니다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나무처럼 돼 버린 그 다음부터 점점 변화가 되기 시작하여 완전히 인간의 성품이 100% 없어졌습니다. 인간의 성품이 100% 없어지자 정말로 아파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도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봐도 좋아하지 않고 나쁜 것을 봐도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니다. 남이야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견하는 음란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형제가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견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참견하는 음란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습성이 과거를 자주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를 생각하려면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

렀습니다. 그게 3개월 만에 되었습니다. 그 만큼 이 사람은 집중력이 강한테다가 한번 하고자 하면 밥집을 자기 않고 기어이 해내고 마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려면 할 수 없는 경지에 3개월 만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역시 한참 멀었으며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관심의 음란죄'라고 하시기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사람은 가족을 생각하려면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누구든지 내 몸처럼, 누구든지 내 하나님처럼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화가 내려야 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게 하면 화가 나지요? 자존심이 나오면 '자존심 음란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존심을 관외로 한 것인데 그 방법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전부 내 삼전, 내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내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니까 바로 자존심 마귀가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을 괴롭히고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을 때려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그게 이긴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이겼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를 닦는 길입니다.

그래서 매순간 과제가 떨어지면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가니까 승승장구로 이겨서 결국은 이긴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그런 마음의 싸움을 해서 승승장구로 이기는 이긴자가 되어야 합니다.\*

2001년 10월 16일 말씀 중에서



## 정들었던 일동을 떠나게 되다

낮에는 군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민간인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놀려 다닐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다. 군인의 신분이지만 생활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중심에 자리하였고, 일상은 죄와는 거리가 먼 절도 있고 규모 있는 시간으로 살려고 노력하였다. 장교의 신분으로 얼마든지 개인 여가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전쟁으로 인하여 배움의 기회를 잃은 많은 불쌍한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일에 전력을 쏟아 부었던 것이다. 자연히 희생과 봉사 생활은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렇게 바쁘게 군 생활에 매진하다보니 세월은 어느덧 흘러 정말 7년 복무 기간이 끝났다. 군인이란 신분은 자기 가 더 있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군의 정해진 명령에 의해서 후방으로 전출 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부대 내에서나 밖의 민간인들의 애석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한 사람의 군인 신분으로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준 안팎으로 미처다보니 그 아쉬움은 몇 갑절 더 하게 되었다.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전출 가게 됨을 직속상관 이하 병졸들까지 못내 아쉬워하며 눈물 어린 이별을 고하였다. 부대를 떠나게 된 날

제자들과 동네 유지들도 이를 알고서 떠나가는 역전까지 나왔다. 그간의 정들었던 교장과 사람들의 눈물의 환송을 받으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기차에 실었다.

### 꿈에 이단의 괴수 박태선 장로에게 안찰을 받다

일부 부대에서 떠나 새로운 발령지인 논산 신병훈련소 교육장교로 보직을 받고 오게 되었다.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세상 말처럼 전방부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을 또 하나 툄 모아서 중·고등 과정을 가르치게 되었다. 낮이면 논산 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하고, 밤이면 민간인 청년들을 모아 공부를 가르쳤다. 개인의 사비를 들여 전막을 사고, 책상과 의자와 칠판 등 가르칠 수 있는 도구를 갖추어 최소한의 교회 겸 학교의 형태를 갖추어 시작하게 되었다.

낮에는 부대에서 밤에는 천막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공부를 가르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무리 젊은 청년의 몸이지만 피곤하고 힘들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그렇게 몸을 돌보지 않



박태선 장로님이 초창기에 안찰하는 모습

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체력이 떨어지고 약해져 간혹 피를 토하고 기침을 하는 때도 있었다.

어느 날 밥집을 지는데, 꿈에 이단의 괴수라는 박태선 장로가 나타나서 안찰을 해주었다. 너무 통증이 심해 꿈에서도 펼칠 뻔 정도였다. 또 안찰을 하신

후 이번에는 귀에서 고막을 꺼내 찢어진 부분을 꿰매 주시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훈련병 시절 동료들과 함께 군용 트럭을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날아온 포탄이 트럭 바로 옆에 떨어져 당시 타고 있던 훈련병의 대부분이 심한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이 사람은 포탄이 떨어질때 동시에 공중으

로 뛰어 올라 회전 낙법을 이용하여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눈두렁에 떨어져 위기를 모면하였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니 파열이 박힌 사람, 총열이 목덜미를 뚫고 나온 사람 등등 각양각색으로 부상을 당한 동료들이 피를 흘리고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외쳐대고 있었다. 그런데 인술 책임자인 중대장은 전투 경험이 없는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댔 뿐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워낙 겁이 없는데다가 3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해 온갖 시련과 역경을 다 겪었는지라 침착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응급처치를 해 주었다. 총열이 목을 뚫고 지나간 사람은 군화로 머리를 눌러 움직이지 않게 하고는 총대를 힘 있게 당겨내니 "우두둑!" 하면서 총열이 빠져나왔다. 총열이 박혔던 구멍으로 붉은 피가 철철 흘러나오는 고로 리닝셔츠를 찢어 나오는 피를 막았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응급조치를 하면서 부상병들을 돌보아주었다.

그때 이 사람도 폭발음으로 인하여 한쪽 고막이 찢겨나갔던 것이다. 그 후부터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작은 소리를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여 되묻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박태선 장로님이

꿈에 찢어진 고막을 꺼내니 고막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굉장하 커 보였는데, "이렇게 고막이 찢어졌으니 소리를 잘 못 알아듣지!" 하시며 친히 바늘로 고막을 꿰매서 도로 귀 안으로 넣어 주시는 것이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자마자 참 신기한 꿈을 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과 같이 즐겁기 위하여 일어나서 군복을 입으려고 허리띠를 풀러 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배가 아파왔다. 옷을 헤치고 아픈 곳을 보니 진짜 새까만 손자국이 배, 옆구리 등에 나 있었다. 그걸 보니 간밤에 꾸 꿈이 더욱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었다.

"꿈에 안찰을 받았는데 실제로 안찰을 받은 것처럼 손자국이 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돌아가는데, 뭐야! 문득 시계 돌아가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는 것이 아닌가. 전에는 시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었다. '꿈에 귀 수술을 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귀가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구나!' 참으로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게도 생각되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박태선 장로를 한번 만나러 가기로 작정을 하였다.\*'